

너무 싼 우선주... 지배구조 물려 '매력주' 환골탈태 기대

의결권 없어 푸대접 받던 '우선주' 보통주 대비 절반값에 배당 많아 "삼성전자·두산 등 상승여력 충분"

40.9%, 2.48%.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보통주 대비 평균 가격과리 수준과 배당수익률(2017년)이다.

그야말로 우선주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요즘 주식시장은 이렇다 할 호재도 없고, 지수는 조금 오르려는 것 같지 않으니 내내 맥 없이 고꾸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런데도 답답한 증시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우선주는 '아더(Other·기타)'일 뿐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 의결권이 없는 탓에 주가는 보통주보다 절반 이상 싼 종목도 쉽게 볼 수 있다. 알짜 우선주를 저렴하게 잘 골라잡는다면 배당과 시세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도 있다.

〈2019년 우선주 관목상대 Top 7〉

종목명	우선주 시가총액 (십억원)	우선주 주가 (원)	보통주대비 주가과리율 (%)	52주평균 거래대금 (십억원)	2017년 배당수익률 (%)	Valuation(12M Fwd)	
						P/E (배)	P/B (배)
삼성전자우	32,395.1	35,850	17.9	55.6	2.0	7.0	1.1
삼성화재우	569.8	178,500	36.1	1.0	5.7	13.5	0.9
삼성전기우	135.0	46,450	59.4	0.8	1.8	8.4	1.5
한국금융지주우	219.4	37,450	45.5	0.3	4.6	7.0	0.8
두산우	345.4	78,300	40.2	0.2	7.0	13.6	1.0
한화우	10.2	21,300	29.5	0.8	3.1	4.2	0.5
태영건설우	14.7	5,730	44.4	0.6	1.9	2.6	0.5

/자료=Quantwise, 하나금융투자

특히 국내 상장사의 경영권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부각되면서 우선주 투자자의 매력은 점차 커지고 있다. 상속세 재원 확보 수단으로 배당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 2세 승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나 준비중이면서 오너가 고령인 경우 우선주의 배당투자 매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선주 시장

의 극단적 저평가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가치를 공유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경우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평균 가격과리는 40.9%에 달한다. 보통주도 싸지만 의결권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우선주는 이보다 절반가량 더 싸다. 독일의 우선주 가격과리율(3.5%)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알파벳 A(의결권)와 C주(무의결권) 간 가격과리는 0.6%에 불과하다.

하나금융투자 김용구 연구원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타겟 과리율 10% 사수 발언 등은 한국 우선주의 극단적 가격과리 완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우선주가 지닌 차별적 투자 메리트도 한층 커졌다. 2017년 말 기준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2.48%다. 보통주의 1.62%와 시중은행 예금금리인 1.60%를 넘어서는 수치다.

김 연구원은 "시장의 중장기 트렌드로 자리잡은 주주친화적 재무정책 변화나 경제민주화법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선명성 개선 시도 등은 투자대안으로 우선주의 유용성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두산, 한화 등 우선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삼성그룹은 선진화된 기업 투명성과 함께 배당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 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해외 우선주보다 할인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른 주요 그룹 우선주 역시 보통주 주가 대비 70~80%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우, 삼성화재우, 삼성전기우, 한국금융지주우, 두산우, 한화우, 태영건설우 등을 투자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측면에서도 매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 재원 확보는 주요 그룹과 상장기업 최대 주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재벌그룹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배경으로 성장한 비상장기업의 기업공개가 재원확보의 좋은 수단이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향후에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한 부의 축적만이 유일한 상속재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혁신성장 통해 ‘번영시대’ 열어가길”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韓·中 인사, 동북아 경제발전 논의

한·중 재계 주요 인사들이 동북아시아 경제 발전을 논의했다.

중국 보아오포럼은 2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을 개최했다. 행사 주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담당했다.

보아오아시아포럼은 아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 포럼이다. '아시아의 다보스'라 불린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렸다.

보아오 서울 회의에는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중국 왕용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중국 고위 임원이 해외 보아오 포럼에

/김재용 기자 juk@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진위안 텐스그룹 회장과 쉐우링 텐진 타이다 에너지그룹 회장을 비롯해 추귀홍 주한중국대사와 리바오동 보아오포럼 사무총장도 동석했다.

주제는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로 정해졌다. '글로벌경제와 아시아 경제협력' '과학기술 혁신' '포용적 성장' 등 3개 세션이 진행됐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그동안 경제협력으로 다져진 양국의 관계가 오늘을 계기로 더욱 굳건해지기 바란다"며 "세계화와 자유무역 수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성과 지속가능개발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개막식 인사를 건넸다.

생산자물가 1년 만에 하락세

한은, 10월 지수 전월대비 0.4% ↓ 농산물 지수 9.7% ↓ ... 낙담세 최저

지난 10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생산자물가가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05.41(2010=100기준)로 전월(105.81)보다 0.4%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0.1% 하락 이후 약 1년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내린 것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이 컸다.

농림수산물 지수(123.34)는 전월 대비 9.7%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118.69) 이후 6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날개 단 IPTV, 이통사 새 수익원 자리매김

이통3사 3·4분기 매출액 9350억 전년 비 23.1% ↑ ... 작년 흑자 전환

출시 10주년을 맞은 인터넷TV(IPTV)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콘텐츠의 충원 등에 힘입어 케이블TV를 추월하며 이동통신사의 새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케이블TV 업체까지 넘보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IPTV 매출액은 총 9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주문형비디오(VOD)로 시작했던 출범 초기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투자비와 적자를 기록해 이동통신사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2016년까지 4조원에 달했던 누적 적자는 지난해 흑자 전환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권도 IPTV 업체가 쥐었다. 포화된 시장에도 결합할인을 내세운 덕분에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422만명의 가입자를 기록, 케이블TV를 처음 추월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KT가 20.2%, SK브로드밴드 13.7%, CJ헬로 13.1%, LG유플러스 10.9%, KT스카이라이프 10.3% 순서다. 이 중 3개 업체가 IPTV다.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는 IPTV의 급성장세를 보여주는 셈이다.



모델들이 'U+tv'의 넷플릭스 콘텐츠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유료방송서비스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영상체감품질은 IPTV가 4.15점을 받아 케이블TV, 위성방송, 8VSB 상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콘텐츠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실시간 채널 수는 IPTV가 19만3453편으로, 케이블TV(19만 7593편)에 비교해서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IPTV 3개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IPTV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자. 실제 올해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설이 계속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할 경

우 SK브로드밴드를 넘어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오르게 되는 등 IPTV 순위가 뒤바뀔 기로로 작용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콘텐츠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공룡'인 넷플릭스가 글로벌 사업자로 발돋움한 것도 콘텐츠의 힘이다.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면 결국 시청자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동통신사도 콘텐츠 발굴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IPTV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단독으로 손잡고 지난 16일부터 자사 'U+tv'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추천 기능도 140개 키워드 조합을 1000개로 늘렸고, 시청이력에 따른 추천 목록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기존 컨테이너선 환경규제 맞춰 대응키로

>> 1면 '현대상선, 친환경 부활'서 계속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LNG선은 화물을 싣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효율성이 낮다.

현대상선은 스크러버를 설치한 새 컨테이너선 발주를 통해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이 최근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만 총 20척에 달

한다.

이 가운데 2만3000TEU 선박 7척은 대우조선해양이, 5척은 삼성중공업에게 각각 맡겼다. 또 1만5000TEU 8척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다. 아울러 총 42만TEU에 달하는 기존 컨테이너선들도 IMO 환경규제에 맞춰 상황에 따라 저유황유를 쓰거나 스크러버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선사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프

랑스CMA-CGM은 최근 2만2000TEU급 LNG 컨테이너선을 발주해 업계를 놀라게 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회사가 발주한 스크러버 설치 컨테이너선은 2020년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2만3000TEU급은 유럽 노선에, 1만5000TEU급은 미주 노선에 각각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전 세계 60개 이상의 항로를 통해 100개가 넘는 항구를 연결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서비스는 더욱 빠르고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중국)·광양(한국)=김승호 기자 bada@